

## Online Series

2023. 09. 27. | CO 23-31

# 한미동맹 70주년의 교훈: 의미와 성과

정성윤(통일정책연구실장)

2023년 10월 1일,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맞이한다. 본 글의 목적은 한미동맹 70년의 태생, 과정, 그리고 현재를 반추함으로써 동맹의 가치와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원고는 한미동맹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 헤안과 결단으로 극적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 그늘에 있다고 평가한다. 국제정치사에서 군사 동맹의 평균 수명이 9년 남짓했다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70년 지속은 극히 예외적이다. 본 연구는 한미동맹이 그토록 긴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해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공통의 목표와 가치, 성과의 창출과 배분, 강력한 수호 의지를 주목한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동맹의 균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관리한 점 또한 동맹 지속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아울러 한국의 성장과 전략적 편익, 역내 세력균형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점은 동맹 70년의 소중한 성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했음은 자명하나, 동맹을 수호하고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헌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은 당연한 평가이다. 한미동맹을 70년간 훌륭히 키워온 우리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 1. 한미동맹 탄생 : 지도자의 전략적 헤안과 판단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산(遺産)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와 판단이 없었다면, 과연 한미동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리는 소위 '반사실적

사고(counter factual thinking)’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취가 한미동맹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성취, 문화의 선진성 등의 자산들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맹 결성 7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지도자의 고민과 헤안의 그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의미와 그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를 반추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1951년 7월 이후 지난했던 정전 협상의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1953년 1월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한국전쟁의 조기 휴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휴전협정이 효과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조속히 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영토문제’와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 반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의지를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군의 유엔군 탈퇴를 언급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결기를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안으로 선(先)한미상호방위조약, 후(後)휴전체결을 제시했다.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5월 30일 한국과의 안보조약 체결을 결심했고 6월 6일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천 명의 석방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휴전 이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전환했다. 7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한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그 지휘하에 둘 것이고, 휴전에 서명은 하지 않겠지만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며, 휴전 이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12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관한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0월 1일 역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조인되었다.<sup>1)</sup>

이처럼 한미동맹은 1129일 동안 지속된 전쟁의 결과이기에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은 6.25전쟁이 낳은 쌍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전선언에 대한 전략적 반대의 급부로, 정전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이 탄생한 것은 아이러니이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강대국 국제정치의 맥락을 정확히 진단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판단이 없었다면 한미동맹은

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7월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11월 18일 정식 발효했다.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조기 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 등장, 그리고 정부 출범 직후에 막대한 전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중국 등 강대국들 모두가 휴전을 바라고 있음을 이승만 대통령은 주목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의중을 파악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 참여와 정전협정의 서명을 거부하며 미국의 선택을 전략적으로 강제했다.<sup>2)</sup> 한미동맹은 한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행동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 2.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

### 한미동맹 지속의 이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왜 동맹을 맺었고 각자가 동맹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53년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은 이유를 살펴보면 강대국이 동맹을 형성하는 기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북한의 재침 억제·일본의 방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수호한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드는 것도 미국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한국도 당시 제2의 한국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그리고 견고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즉 70년 전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사활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고, 이것이 동맹 창설의 핵심 배경이다.

하지만 모든 동맹이 그렇듯이 창설은 용이해도 유지하는 어렵다. 국제정치사에서 방위조약의 수명이 평균 9년 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이를 대변한다.<sup>3)</sup> 지난 70년간 국제정치의 미증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70년간이나 지속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 달리 말하면 한미 양국이 동맹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지난 70년의 동맹의 역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미국은 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과 역내 리더십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해야 하고 일본을 지속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을 방어하는 것 또한 안보적 목적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호전성과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치·안보·경제 네트워크가 복합화되고 일치되어가는 현재 국제정세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sup>2)</sup>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지지해야만 했고 동시에 북한의 재침을 억제해야만 했다.

<sup>3)</sup> Melvin Small & J David Singer, "Formal Alliance, 1816-1965: An Extension of the Basic Dat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지속 가능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국과의 동맹이 해체되거나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 한국은 우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야만 할 것이고, 치열한 경제 안보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70년 전과 비교할 때 동맹이 결성되었던 주요한 이유 일부는 사라지거나 희석되었다. 물론 동맹 결성 이유가 반드시 존속되어야만 동맹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소련은 소멸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존속되고, 오히려 냉전 시기보다 회원수가 증가하고 동맹의 내용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설혹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혹은 양국 간 공통의 중요한 경제적 이유로, 혹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의 입지 강화를 이유로, 동맹의 필요성과 그 가치는 언제나 재생산되고 확장될 수 있다.

물론 70년 동안 지속된 동맹의 역사가 허무할 정도로, 동맹이 갑자기 균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동맹은 존재 이유가 충분하고 넘쳐도 언제든지 다른 요소로 인해 약화되거나 와해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60~70년대 미국과 프랑스의 전략적 불협화음 노출과 중국과 소련의 갈등, 미국과 대만의 단교<sup>4)</sup>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교훈을 고려해 향후 한미동맹에 국한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동맹 지속에 대한 도전요인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양국 내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증폭되는 경우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국내정치가 외교에 차지하는 비중이 강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어느 일방의 정부가 잘못된 동맹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냉전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이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가 유사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간섭도 중요한 도전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북한과 중국이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인데, 우리 정부가 과거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다하게 기대하며 소위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를 보냈던 것과 같은 태도는 동맹 균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sup>5)</sup> 현재 유럽의 대부분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우리와 유사한 국가정체성을 가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동맹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 미국과 대만은 1954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1979년 1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위조약의 파기를 선언했다.

5)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및 강화하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유지하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사활적 국익이 존재한다면, 70년의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동맹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 역사적 의미: 편승의 지속과 질적 전환

건국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의 특징을 단순화한다면 그건 아마도 대미 편승(bandwagon)일 것이다. 하지만 근대 국가체제가 형성된 17세기 중반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대외정책으로 강대국에 대한 편승을 선택한 것은 그리 낮은 현상이 아니었다.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위치한 약소국은 안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가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로 주변 강대국들과 마찰을 자제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혹은 불가피하게 강대국에 대한 편승을 채택했다. 우리의 생존전략이었던 셈이다.

특히 오랜 시기 동북아의 절대 패권 세력인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편승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받은 영향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대중국 편승을 통한 영향과는 차별적이었다. 중국은 주로 정치적·문화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외삽했다면,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정도의 압도적 영향을 미쳤다. 대리전이 횡횡했던 냉전의 시기와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된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했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매년 약 3억 달러 정도의 군사원조를 했다. 이는 50~60년대 한국 국방비의 90% 내외에 달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경제발전을 원조했고 우리의 국가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했다.

한미동맹이 다른 동맹과 차별되는 특징과 함의가 있다면 그것은 동맹의 질적인 전환이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2,500년 전 투키디데스가 ‘인류의 영원한 재산(Eternal Possession)’이라 칭했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 관계는 항상 냉정하고 잔인했다. 비록 동맹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강대 동맹국과 약소 동맹국 간 역사가 주는 함의는, 강대국들이 항상 시혜적이지 않았고 약소국이 영원히 순종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맹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소위 연루와 방기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소위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오래되고 자연적인 약소국의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상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루될 수 있는 도전요인을 극복해야만 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무력 행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단념시켜야만 했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지역 전략에 연합해야만 하는 곤란함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미중전략 경쟁하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연루의 문제와 별개로 방기의 위험도 동맹의 지속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했다. 닉슨,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달리 질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소 동맹국이었던 한국의 국력이 증가함에 따라 동맹 간 협의의 수준과 내용은 점차 높아지고 확장되었다. 일방적 시혜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벗어나 한미 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방기의 위험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명실상부 ‘협력’의 상호의존이 실질적 강화되는 관계로 동맹이 진화되고 있다.

### 국제정치학적 의미: 방어적 현실주의의 작동

동북아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학문적·이론적 접근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동북아 안보질서는 소위 국제정치 이론 중 ‘방어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적실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구조적 세력균형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자 기능을 담당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적실성 논쟁이 본 글의 목적은 아니기에 구체적이고 장황한 기술과 주장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국제정치학적, 이론적 의미를 반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주장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동맹이 작동한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치는 무정부적이었다. 무정부적 동북아 관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냉전기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 70년간 동북아에서 강대국들은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다. 동북아에서 4개의 주요 동맹 즉 한미동맹, 미일동맹, 중북동맹, 러북동맹이 안착된 1961년 이후, 동북아의 강대국들은 대체로 권력 분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지속적으로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중북동맹과 러북동맹 또한 능력 차원에서 절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기에, 한미동맹이 작동했던 지난 70년간 동북아 국제정치를 공격적 현실주의 차원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70년간 동북아 국가들은 상대의 공격 의도, 세력균형을 파괴하려는 의도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 이는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소위 ‘위협의 균형’에 대한 이론적 명제가 동북아에서

검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방어적 현실주의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역내 안보딜레마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Van Evera, Posen, Charles Glaser 등) 대체로 국가가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견지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주장한다. 한미동맹은 동맹 규약상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부차적으로는 역내 강대국들의 현상 파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이다. 북한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과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절제하고 신중한 군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 세력인 중북, 러북 동맹의 공격성을 자제시키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이 그간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 3.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

#### 한국의 국력 신장과 선진국 도약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정치,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능력의 강화를 추동했다. 이는 신생국이자 약소국이었던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해 오늘날 한국이 선진 강대국의 반열을 꿈꿀 수 있는 기적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동맹의 성과로 한국의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미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재침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다. 북한은 전후 복구를 단기간 마무리하고 60년대 중후반 이후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대남 공세를 이어왔다. 특히 1968년 1.21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잦은 무장 공비의 파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북한은 호시탐탐 군사적으로 한국을 제압하고 무력 통일을 기도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시종일관 주한미군 철수를 대남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국의 강력한 한국 수호 의지였다. 만약 한미동맹이 없었거나 허약했다면 북한은 60년대 후반 이후 중소 갈등과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등을 기회삼아 남한을 재침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70년 한미동맹의 후반부인 지난 30년은 북핵의 시기였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은 비단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강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적인 핵 강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 수호

의지와 확장억제력이다.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은 증폭될 것이며, 우리는 그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북한에 대한 과감한 유화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전략적 곤란함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경제, 외교, 정치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 유력하다.

동맹을 통한 안보적 성과는 비단 국방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미국이 각각 한국, 일본과 동맹을 유지한 지난 70년간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은 부재했다.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일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순간마다 양국의 자제와 화해를 견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해왔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체제는 한일 양국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아울러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외교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은 지난 70년간 부재했다.

동맹의 성과 중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성과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이다. 미국의 안보적 기여로 인해 한국은 오랜 기간 한정된 국가 자원을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는 한국의 경제 인프라의 단기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열어주고 자본과 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고, 한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과감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

동맹을 통한 안보적·경제적 성장은 정치적 차원의 영향과 성과로도 확산되었다. 동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호감의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의 정체성과 국가 비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냉전기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정체성이자 헌법의 핵심 가치로 강력히 수렴되었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성장은 무엇보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리의 우월함을 확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냉전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정세 장악력을 불허하고 남북한 간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북한 각자의 독립 정부 수립 이후 약 20년간 대체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을 앞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한국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북한으로부터의 강압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았다. 하지만 동맹을 통한 안정된 안보의 터전하에 추진된 급속한 경제 성장은 70년대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



채택으로 이어졌고, 8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에 대한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는 계기가 되었다.

### 평화 구축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시적 성과는 바로 한반도와 역내에 차갑지만 사실상의 평화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의 파수꾼이었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 행동을 억제했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 안보 안정화에도 적극 기여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 역내 안정자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국가 간 안보딜레마가 지속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어서 협력을 통한 뜨거운 평화는 구축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미동맹으로 인해 전쟁이 억제되었기에 이를 사실상 ‘차가운’ 평화라고 지칭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맹의 안보적 성과는 그 태생부터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은 철수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약속으로 인해 남한에 주둔했다. 이는 전후 초기 남한에게 유리하고 북한에게 불리한 전략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북한은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약 40만 건이 넘는 다양한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든 것이 한미동맹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북한 남침의 억제자이자 지역의 안정자였으며 한국군의 질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긴밀한 군사 협력 체계를 통해 세계 최강의 미국의 무기체계를 습득하고 작전 및 훈련 체계의 선진화를 구축했다. 특히 70년대 이후 미국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시작된 자주국방의 성과는 반세기 만에 세계 6위권의 군사력 구축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견인차가 되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다시 한미동맹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역내 안보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한미동맹의 성과는 비단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의 안정성을 견인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국주의의 과다팽창(over-stretching)이 전 세계를 휩쓸 때, 동아시아 또한 강대국들 간 경쟁의 장이 되었다. 동북아는 지난 두 세기 동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 그리고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 경계가 중첩된 갈등과 경쟁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 근 100년간 동북아는 아편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역내 패권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사활을 건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던 지역이다. 현재 동북아를 구성하는 역내 6개 행위자들 모두가 전쟁을 치루었다. 유럽의 화약고가 발칸반도 지역이었다면, 아시아의 화약고는 바로 동북아였던 셈이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 지난 70년간 동북아에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두 국가와 미국이 군사 동맹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대륙의 강대국들의 군사적 팽창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지난 70년간 전쟁이 부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내 견고한 세력균형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즉 어느 국가도 이를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어느 국가도 그러한 전략을 감히 채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형성과 작동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촉진제이자 유지자 기능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균형적 역할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중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 지정학적 가치 등으로 볼 때 미국은 역외 안정적 균형을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달성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이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동맹의 균열을 감내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굳건히 견지하고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금번 4월 26일 발표된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는 이러한 미국의 필요와 고민이 담겨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등 한미동맹의 협력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자연스럽게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정세 장악력을 높임과 동시에 세력균형의 훼손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역내 균형적 역할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4. 결론

70년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2천 1백만이었던 인구가 150%나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53년 66달러에서 2022년 3만 2,886달러로 500배나 증가했다. 막강한 군사력은 우리 스스로의 생존력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놀람과 부러움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이제 증대된 국력과 국격을 바탕으로 인류의 중요 현안을 직접 주도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명실공히 글로벌 중추 국가의 반열에 입성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성취를 이루고 있으며, 그 힘을 축적해 통일한국의 성취를 대비하고 있다.

이 모든 성취에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지난 70년간의 성과들과 앞으로의 성취들이,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자산(Eternal Possession)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탄생시키고,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유지되고 진화시켜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의지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할 필요가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